

아이 진짜 헛소리하지마벌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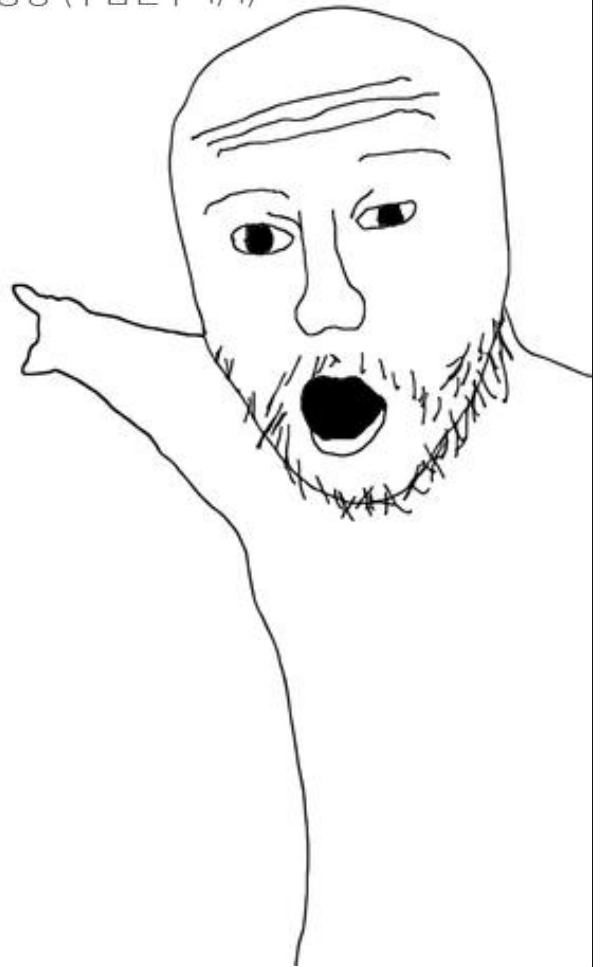
발행인 : 노승준

편집인 : 노승준

쪽 지 : 7

날 짜 : 2026.06.05

6월	15일(월) ~ 19 일(금)	1학기 기말시험
	15일(월) ~ 28 일(일)	1학기 성적 입력
	19일(금)	1학기 종강 (수업일수 4/4)



까 치 소 리

1. 종강총회를 제외하고, 해당 총회를 끝으로
2026년 1학기 활동은 종료됩니다!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2. 현 회장이 2학기에 휴학을 할 예정이라서 다음
학기부터 행소문학회의 회장이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3. 행소문학회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회의 의미

* 모든 예술적 창작은 독학하다보면 자신만의 표현에 고착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든, 미술을 배우든 누군가와 함께 배우기를 권장하지요.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소문학회의 '총회'는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마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과 감상을 나누며 자연스레 문학적 성취가 조금씩 쌓여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의 글을 나눔에 있어 어떤 에티켓을 지녀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 (1) 상대의 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 = 두루뭉술하게 '이 글은 그저 싫네요.'라는 표현보다는,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넘어 상대의 글을 함께 완성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2) 상대의 글이나, 반대되는 의견에 화를 내거나, 비꼬는 말투는 좋지 않습니다.
 - = 명심하세요, 총회에 투고된 작가의 글을 함께 교류하고, 완성시키는 총회입니다.
 - 말하는 이가 주인이 아니라, 작품이 우리 시간의 주인입니다.
- (3) 잘 쓰든, 못 쓰든, 작품의 질을 넘어 상대의 작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 = 우리 모두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노력이 뒤에는 큰 성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느라, 상대의 짝을 꺾지 않도록 합시다.
- (4) 선배는 권위적으로 상대의 글을 보지 않으며, 후배는 열린 마음으로 선배의 말을 경청합니다.
 - = 선배는 단지, '조금 앞서 걸어간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을,
 - 후배 또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을 가집시다.
- (5) 가능하다면 의견을 제시하는 이는 그 다음 수순을 얘기해주세요.
 - = 물론 우리 모두 배워나가는 과정이니 감상부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 그러나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이러한 표현보다는 저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예시를 들어준다면,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6) 나의 말과 글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열린 마음의 겸손함을 가집시다.
 - =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더군다나 아직 학부생인 우리는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 나의 말과 글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늘 조심합시다.
- (7) 나의 글이 소중한 것과 같이 상대의 글을 소중히 합시다.
 - = 문우(文友)의 우정은 별 것이 아닙니다.
 - 글을 교류하는 것은 진솔한 자신을 교류하는 것이며,
 - 서로가 열린 마음이라면 자연스레 진솔한 벗이 됩니다.
 - 오늘 여기오신 모두가 문학은 물론, 진솔한 글벗을 사귀어갔으면 합니다.
 - 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미물(微物)에게 고(告)함

백석은 차디찬 겨울 바닥에서 자그마한 새끼 거미 한 마리를 보드라운 종잇장에 올려 수라(修羅)의 세상에 선뜻 내민 연민을 보였다. 나는 바닥을 청소할 때 바닥에 놓인 체중계를 특히 신경 쓴다. 들추어 올리면 바닥에 묻은 솜털 같은 먼지들 사이로, 작게 꼼지락거리는 미물(微物)이 더러 있다. 어렸을 적 아침에 본 집거미는 길조(吉兆)이니 살려두고 저녁에 본 집거미는 흉조(凶兆)이니 죽이라는 옛말, 오랜 세월을 건너 건너 우리 할머니를 거쳐 나에게 전해왔다. 거미와 나의 닮은 점은 겹이 많다는 것. 그나마 작은 나의 새끼손가락 손톱 끝을 대어 타고 오르라고 내밀어도 작은 거미는 버둥거리다가 결국 나의 작은 배려를 거부한다.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나는 변변찮은 술래가 되고 거미는 공포의 손가락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의 배려가 작은 거미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이 펍 서글펐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 결국 움츠리고, 늘 가는 거리마다 발부리에 돌 따위가 채여 꼴사납게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연신 돌바닥과 시선을 맞추는 나의 유약함!

인간이랍시고 대뜸 원하지 않는 배려를 건네는 나의 모습은, 거미에게 어떻게 비춰 보일까. 나는 타인이 두려워 다가가기를 주저하면서도, 한낱 새끼손톱만 한 거미는 쉬워 보인다며 다가가는 모습, 그것은 거미에게 수라(修羅)와 진배없다. 나는 한때의 서러움도 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청소기에 아득히 빨려들거나 발에 밟히거나 할 것이 눈에 선하여 어떻게든 내 손등으로 올리려고 저 미물(微物)과 실랑이 벌이기를 10분이다. 거미는 끝끝내 포기했는지, 아니면 오지랖 넓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았는지, 겨우 조심하며 한 발짝, 한 발짝씩 벌벌 떠는 마음 위로 올라왔다. 나는 어느새 봄기운이 감돌아 온화한 베란다에서 지난 겨울내 싸늘했던 우리 집안 방바닥을 떠올리며 계절감에 젖고 있노라니, 이런, 손등에서 갈팡질팡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거미를 잊고 있었네. 검붉은 화분 안 연꽃빛 싱그러운 잎사귀 위에 그를 살포시 올려주었다. 감축이 달라진 것에 잠시 놀란 것 같더니, 곧 익숙하다는 듯이 잎사귀 뒤로 헐레벌떡 숨어서는 우리 집과 숨바꼭질을 계속하려나 보다.

거미여, 나는 네 본적(本籍)이며 가족이며 형제 관계며 하물며 너의 이름이며 나이며, 어느 것도 아는 것은 없으나, 다만 어느 바닥인지 모를 곳에서 객사(客死)할 것이 짐짓 걱정되었을 뿐이니, 너무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니라. 어느 곳에서 또 마주치면, 그때도 너는 무서워할지 모르겠으나, 이 마음 알아주어 선량한 숨바꼭질 또 하자 꾸나.

텐노지(天王寺)에서

텐노지(天王寺)라는 절이 하나,
먼 옛날 쇼토쿠(聖德) 태자가
이른 태양이 밝은 섬나라에 하나,
모셔 온 불법(佛法)의 가르침을
도심 한복판에 기리는 절이 하나.
이를테면 그는, 사해(四海)를 무릅쓰고 불(佛)을 밝힌
일본의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명실상부(名實相符) 경(經) 하나 알지 못 하는
우리 집으로 가사(袈裟)며 불경(佛經)을 가져온
어머니는 이를테면, 우리 집안의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도 쇼토쿠 태자도 어머니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의 한바탕에 불을 지핀, 최초(最初)의 영웅들.

농담

우린 얻으려 애쓰지만
잔은 기어이 비워진다.
그게 삶의 농담이다.

아마, 너무 짝 쥐어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머물지 않으려던 것들이었을까.

잔은 흘린 적 없다며
우긴 날도 있었다.
손끝이 젖어 있었을 뿐.

그러다 문득,
빈 잔이 가벼워
흔들리지 않는 순간을 알게 된다.

그제야 조금 웃는다.
애초에 그 자리는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면,
비워둔다고 잘못 안 것도.

..둘 중 무엇이든
굳이 정답은 없을 테니.

-애늬은이는시를뭏썌

1. 집중!

단어에 사로잡히는 시는 방향을 잃는다
담백함이 곧 날카롭게 곤두선 자침이 될 것임을

2. 집중!

장황한 시는 목적까지 한참을 둘러간다
시가 아닌 소설은 단어를 나태하게 하는 것임을

3. 집중해라!

사랑, 우정, 시에선 흔해빠진 단어들이
치장을 한다고, 분칠을 한다고
거창한 말들에 제 소리가 흐려졌다

4. 내 스스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새벽 6시 반, 기어이 그녀만을 향해 등교하는 것
흙 비린내와 떡볶이 냄새로 소나기를 기억하는 것
뻗뻗한 목구멍과 눈물로 노을의 온기를 느꼈던 것

결국 전해져야만, 그제야 네게 내가 비침을 깨닫고,
그대 사이에 덕지덕지 묻혔던 말들을 닦아내는 것